

재미작가 홍언(洪焉:1880~1951)의 시조 형식 모색과정과 선택

박 미 영*

〈目次〉

1. 서론
2. 작자의 생애와 서정 작품 개관
 - 2.1. 작가의 생애
 - 2.2. 서정 작품 개관
3. 시 형식의 모색과정과 시조 시형 정착
 - 3.1. 1935년 이전 서정 형식의 모색
 - 3.2. 1935년 이후 시조 시형의 모색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이민자인 미국에서 활발하게 문학활동을 펼친 홍언(洪焉:1880~1951)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분석하여 그 문학사적인 의의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홍언은 동해수부(東海水夫), 해옹(海翁), 량화추선, 추선(秋船), 리차드 홍(Richard Hong) 등의 필

* 천안대학교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명으로 활동해온 재미 언론가이자 작가라고 할 수 있다.¹⁾ 홍언은 이른 시기에 미주에 이주하여 도산 안창호의 영향으로 국민회 및 『신한민보』 발행에 합류하였고 홍사단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신문 발행에서 여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작품 창작에 더 열정을 쏟은 작가라고 할 수 있다.²⁾ 다양하면서도 많은 양의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전모를 한번에 밝히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홍언이 시도한 많은 시 형식의 변천과정과 마지막으로 시조형을 선택하는 과정을 추적해보고 그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홍언은 주로 『신한민보』를 통하여 작품 활동을 하면서 소설 <미인심(美人心)>(1912), <옥란향>(1918) 같은 서사 작품, <동포>(1917) 같은 희곡 작품에서부터 한시, 창가, 서양곡에 가사 붙이기, 찬송가 개사, 대한매일신보식 가사류 등 400여 편의 서정 작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또한 문학비평을 비롯하여 논설이나 <새물이>같은 고정란에 게재한 글이나 <국민회 약사> 등과 같은 여러 산문을 합하면 작품의 양은 엄청나질 것이다.³⁾ 이와 같이 작품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홍언은 일제 강점시기에 중요한 재외작가로서 연구될 위치에 있다. 특히 국내 문단이나 독자와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는 머나먼 이

-
- 1) 1927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에취 와이”(HY)도 홍언의 필명일 가능성이 있다. 『신한민보』에서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홍언의 작품으로 추측되는 것이 있다.
 - 2) 일생을 두고 보아 대단한 안창호 추종자여서 정치적인 활약을 했을 것 같으나 대한인국민회의 북미총회나 총중앙회에서 백일규의 간청으로 부회장을 했을 뿐이다. 방선주에 의하면, “홍언이 가계상으로는 귀족출신이지만 寒門이 된지 오래된 집안 같았으며, 미국에서 신식교육을 받지 않았고 성격 또한 공격적이지 않아서 교포사회에서 군소 보스적 지위에 올라가기 힘들었다. 다재다능하면서도 주필자리를 가졌던 시기는 1911~12년의 5개월간이 전부였다”고 한다.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87면)
 - 3) 방선주는 시집을 출판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언하고 있다. (방선주, 위의 책, 283면)

국 땅인 미국에서 특정한 시기에 작품활동을 한 작가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감안하면 홍언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가 홍언의 서정작품에 대한 연구는 『신한민보』 수록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1981년 강은혜의 「일제강점기 망명지문학과 지하문학」에서⁴⁾ 일부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신한민보』에 게재한 시가는 『한국문학통사』 4의 〈국문시가의 새로운 양상〉에서 한 차례 다루어졌다.⁵⁾ 1987년 김명숙의 「한국 개화기 유이민시가 연구」와⁶⁾ 1988년에 김영철의 「한국근대시논고」에서⁷⁾ 1918년까지의 시가자료가 정리되고 연구되었다.

그 다음 해인 1989년에 작가 홍언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필명이 동해수부였던 홍언은 195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철필본으로 발행된 『재미한인 50년사』에서 필명과 약력이 소개되었는데⁸⁾ 방선주의 『재미한인의 독립운동』에서 비교적 소상한 평전을 마련하여⁹⁾ 동해수부 홍언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문무학의 「일제강점기 유이민 시조 연구-『신한민보』를 중심으로-」를 통하여¹⁰⁾ 『신한신보』에 1945년까지 게재된 시조 200여 편에 대하여 게재 양상과 형식,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규익의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은¹¹⁾ 『신한민보』에 게재된 문학 작품 자료를 정리

4) 강은혜, 「일제강점기 망명지문학과 지하문학」, 『서강어문』 3, 서강대, 1981.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제3판, 1994), 298~310면.

6) 김명숙, 「한국개화기 유이민시가 연구-『신한민보』를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논문, 1987.

7) 김영철, 『한국근대시논고』, 형설출판사, 1988.

8) 김원룡, 『재미한인 50년사』, 김호(Charles Ho Kim) 발행, Reedley: Calif. 1959. (철필 프린트 본)

9) 방선주, 앞의 책.

10) 문무학, 「일제강점기 流移民 시조 연구:〈新韓民報〉를 중심으로」, 『대구어문론』 14, 1996.

11)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6, 월인, 1999.

하고 분야별 연구를 진행하여 논의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였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본 작업은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더 보태어 동해수부 홍언이 창작한 서정문학의 양상과 작품세계의 규명에 이르는 연구로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10년대부터 1951년에 이르기까지 300여 편의 시조를 발표한 새로운 시조 작가의 발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적·세계적인 격랑의 시대에 대한 현실인식을 시조라는 짧은 서정시에 담아내면서도 자아와 자연에 대한 애정어린 눈길을 한번도 놓친 적인 없는 한 시인의 세계를 규명하고, 일제 강점기의 문학사를 장식한 한 시인의 정확한 자리 매김이 이뤄질 것이다. 이를 목표로 연구에서는 먼저 홍언이 다양하게 실험한 서정시형을 추적하고 단형시조형으로의 선택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홍언이 『신한민보』에 게재된 작품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미 선집되어 있는 작품도 있으나, 홍언의 전체 작품이 수록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신한민보(1909~1973)』 1~27(논문자료사 영인, 1991), 『신한민보』 1~6(아세아문화사 영인, 1981), 『신한민보』 MF자료(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UCLA 대학 소장 MF사본)를 중심으로 서정 작품 전모를 파악한다. 그리고 작가 소개와 더불어 『신한민보』에 발표한 서정작품 전체를 개관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홍언이 40여 년 동안 시험하고 모색했던 시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문학의 형성기라는 우리 문학사적인 격동기일 뿐만 아니라, 국내가 아닌 서양문화의 직수입이 가능한 이민지에서 한 작가의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일련의 작업에서 최종목표로 삼고 있는 한 작가의 문학세계를 규명하는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작자의 생애와 서정 작품 개관

2.1. 작가의 생애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가 홍언은 1880년 2월 27일에 태어났고¹²⁾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한창 접전 중이던 1951년 3월 25일에 타계하였다. 본명은 홍종표이고 아버지가 홍순학이다. 항열을 보면 남양 홍씨 唐洪派의 33세손이 淳자, 34세 손이 杓자가 항열이므로, 홍언은 남양 홍씨 당홍파의 34세손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이력서 내용에 의하면 나서 자란 곳은 京城 南部이다. 구체적으로는 그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고 추억하는 서울 남산에서 동대문 근처로 볼 수 있다.

五 어려서 놀든 데가
종남산 부엉바위
그 곳에 올라가니
털창을 돌아막아 (<꿈에 고국에 가서>(속)1935. 06. 27. 1438호)

홍인문 다나와서
사천을 건너가면



버들이 둘러잇고
그 아래 수간초옥



문전一수 홍도화를
오미불망 하노라 <문전一수 홍도화>(1941. 06. 26. 1737호)

12) 음력으로 추정됨. 1941년 3월 23일에 회갑연을 하였는데 이 날이 음력으로 2월 26일이며 일요일임(『홍언씨의 회갑연』, 『신한민보』 1724호, 1941. 03. 27.). 앞으로 『신한민보』에 게재된 기사나 작품은 () 속에 연도, 일자 와 호수를 기재함.

위에 인용한 시에서와 같이 남산에 올라간 기억 등과 홍릉, 동대문 밖을 언급하는 시 구절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다음의 이력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서울의 동남부지역에서 자랐던 듯하다. 그리고는 22세인 1902년부터 타향살이를 시작하는데 중국을 거쳐 1904년 하와이로, 그리고 미국 서부인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LA에서 생애를 마치게 된다. 초기부터 도산 안창호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활동하고 도산이 타계하고 난 후에도 도산의 딸 수산을 친딸처럼 돌보았다. 따라서 도산의 여러 활동에 동참하게 되는데 『신한민보』의 일도 도산을 통하여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이력서로 대신한다. 다음의 표는 방선주의 「홍언과 국민회」에서 밝힌 홍언의 홍사단우 이력서이다.¹³⁾

출생시	建國紀元 4213년 2월 27일
출생지	한국 경기도 京城南部
거주지	
自출생후至	4227년(1894) 敬성남부
自4227년	至4235년(1902) 廣州及春川
自4235년	至4237년(1904) 中國各支
自4237년	至4244년(1911) 美領布哇
自4244년	至於今 美洲桑港
직업	
自4219년	至4229년(1895) 家庭修學
自4236년	至4236년 12월 量地事務所修契券文簿
自4236년	至4237년(1903) 教授私塾
自4237년	至4240년(1907) 布哇砂糖農役
自4240년	至4241년(1908) 『自彊會報』 편집사무
自4241년	至4242년(1909) 『合成新報』 편집

13) 방선주(앞의 책, 259~261면)에 의하면 LA 홍사단 단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이라고 한다. 아마도 입단 당시에 홍언이 직접 기록한 것인 듯하다. 필자가 입수한 한국 홍사단에 보관서류는 방선주의 기록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나 방선주가 제시한 내용보다는 간략한 형태로 기록되었다. 예를 들면 부와 모, 처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형제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는 것과 같이 중요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다.

自4242年至4243年(1910) 『新韓國報』 편집
 自4244年至4245年(1912) 『新韓民報』 편집
 自4245年至4246年(1913) 印刷役

학예 著述·印刷

단체 自4240年 爲哇伊自強會. 4241년에 자강회가 合成協會와 합동한 후에 합성회원이 되고 4242년(1909)에 합성협회가 共立協會와 합동하여 國民會로 성립한 후에 국민회원이 되고 4242년에 국민회가 大同保國會와 합동하여 大韓人國民會로 성립한 후에 대한인국민회원이 됨. 4242년 爲哇伊 한인기독교 청년회에 입회하여 于今까지 到處 청년회원이 됨.

종교 4241년 예수교회學習人으로 4242년(1909)에 受洗禮

최장기능 인쇄

개명 본명은 '宗杓'로 통행하다가 도미후 '焉'으로 개칭함.

가족	父	淳學 已故
	母	李氏 已故
	兄	寅杓 現住韓國盈德 俊杓 상동 峻杓 現住韓國仁川 景杓 現住爲哇伊
	弟	漢杓 現住韓國京城
	妻	金氏 年34 現住韓國盈德

입단일 건국기원 4246년 월 일

표와 같이 이력서에는 1913년까지 행적만 나와 있는데 이후의 중요한 행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1913년 5월 홍사단 창단 멤버로 홍사단 경기도 대표가 되며 이대위 목사, 백일규와 더불어 『신한민보』를 이끄는 핵심 멤버가 됨.

14) 김원룡, 『재미 한인 50년사』, 121~2, 129면. : 김승학, 『한국독립사』 하, 독립문 화사, 1965. 307면. : 방선주, 앞의 책, 259~302면.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 4, 1994. 127면. : 국가보훈처,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 22: 美州篇 4, 1998. 등과 『신한민보』 기사 참고. 문인으로서의 연보는 일생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서사, 희곡뿐만 아니라 산문 작품 목록이 완성된 이후에 작성하고자 한다.

- 1917년 로스앤젤러스 North Figueroa ST.에 있는 2층 건물에 1층은 흥사단 사무실로 2층은 도산 안창호 가족과 갈 곳 없는 흥사단 단우들이 살았음. 흥언도 함께 살게 됨. 후일 '도산의 꽃동산'이라는 시 제목과 시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집을 지칭함.
- 1919년 3·1운동 후 국민회 중앙 총회에서 화교들에게 지원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한문에 능통한 흥언과 姜永珏, 金永勳 3인을 화교위원으로 임명, 화교들이 사는 크고 작은 도시를 순례함.
- 1920년 북미지방총회 임원 서기로 흥언이 임명되고 다시 미주에 산재한 중국인 僑商들을 심방함.
- 1921년 1월~1922년 국민회 순행위원으로 미국 동부, 중미 남미 등과 캘리포니아 각지를 돌아다니며 국민회 지지를 호소함.
- 1923년 국민회 중앙 총회 총무가 됨.
- 1924(45세)년 독립 의연금 모집을 위한 대순행. 흥사단에서 출판한 국내 잡지 『동광』에 한시 발표.
- 1926년 6월~27년 5월 말까지 멕시코 여행하고 기행문과 기행 시조를 발표함.
- 1931년 7월 상항에 6~7년간 거주하면서 중국인을 위해 논문과 시를 쓰주면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냄.¹⁵⁾
- 1935년 5월부터 시 작품 발표와 예술론을 펼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함.
- 1936년 9월 2일 중국인의 초청을 받아 상항을 떠나 수개월 동안 오레곤, 아리조나, 멕시코 등을 여행함.
- 1938년 3월 10일 도산안창호가 죽음. 이후 김구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시조, 임정이 柳州에서 中慶으로 피난갈 때 시조를 짓는 등 임시정부와 김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 1940년(60세) 28년만에 주필자리를 다시 찾아 3년간 주필을 맡게 되며,

15) 「일년만에 다시 온 상항 차이나타운」, 『신한민보』(1939.10.26.)

건강상 1949년 초에는 Contributing Editor로 물러남.
1945년 가을 미주한인대표 고국방문단이 조직되어 인원을 구성하는 데에 왕복여비와 숙박비를 마련할 수 없어 조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됨.
1949년 1월27일 『신한민보』 「은퇴고별사」에 미주한인의 특수한 처지를 인정하고 38선 철폐와 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함.
1950년 은퇴 후 『신한민보』를 인쇄하는 인쇄국에 기거하면서 발행에 관여하였으나 고혈압, 진행성 폐결핵 등으로 더욱 쇠약해지자 국 민회 증견간부들이 11월부터 한달에 30불씩 보조하기로 함.
1951년 3월 8일 거동할 수 없어 입원하였고 3월 25일 별세하여 로즈데 일 묘지에 매장됨. 양녀 하소정이 비석값 50 달러를 부조로 내었다고 하여 처음 가족의 이름이 거명되고 비석이 세워진 듯하나 현재 무덤에는 비석이 없다고 함.
1995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함. 후손의 부재로 추서만 하였다고 함.¹⁶⁾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02년, 작자의 나이 20대에 조선을 떠나 중국과 하와이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홍언은 문면으로 드러나 있는 삶보다 훨씬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미국이라는 이민지에서 한 시대의 언론을 담당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세계제1차대전·2차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쟁까지 지켜본 충실하고도 강직했던 문인이자 언론인의 면모를 되짚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2.2. 서정 작품 개관

洪彦 혹은 東海水夫, 秋船, 리차드 홍이라는 본명과 여러 가지 필명으로 작품활동을 하는데 1912년 2월 5일자에 도산 안창호와 몇 사람이

16) 국가보훈처 보훈선양정책과.

국민회 기념 축사(1월31일)로 실은 祝詞에 7언 절구 한시(鶻鳩天調)가 첫 서정시로 확인된다. 흥언은 1911년 11월에 『신한민보』의 주필이 되었고 11월 8일자 논설「執筆初日の所感」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이때부터 흥언이 『신한민보』를 통한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서정갈래에 관한 기고는 총 396 편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되었다.¹⁸⁾ 한 신문에 게재되었더라도 제목을 달리 하면 각각 다른 편으로 취급하였고, 여러 회에 걸쳐 나뉘어 게재되었더라도 한 제목 하에 “태一章, 태二장” 등으로 제시되면 한 편으로 취급하였다.

연도	시조	정형	기타	계	연도	시조	정형	기타	계
12			1	1	37		9	2	11
13			2(1)	2	38	1		1	2
14			7	7	39	11	2	1	14
15			1	1	40	18	1	3	22
16	2		1	3	41	38		0	38
17			2	2	42	35		0	35
23			1	1	43	10	1	1	12
24			1	1	44	15		0	15
25			6	6	45	41		0	41
26			2	2	46	46		0	46
27			8	8	47	51		0	51
28	1		1	2	48	0		1	1
31			4(2)	4	49	19		3**	22
35	1	12	3	16	50	2		0	2
36	4	21	3	28					

위 표에서 볼 때 흥언의 서정작품 경향은 1935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

17) 「執筆初日の所感」(1911.11.08. 253호)이 첫 논설이다.

18) * () 속 혹은 짚게 표현한 숫자는 한시 편 수이다.

** 7.7.~7.21 3회 연속 자유시 형태의 시가 실리는데 작자가 “씨심”이다. 추선의 이니시얼로 추정된다.

화하고 있다. 우선 작품 편 수에서 보더라도 35년 이전까지는 모두 40편이고 이후는 356편으로 20여 년간 발표한 작품보다 후반기 15년간의 발표가 거의 7배가 되는 셈이다. 그 가운데 시조가 286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편수로는 280여 편이지만 연시조 형식의 시조도 있어서 그 개개 편수로 따지면 300여 수가 넘는다.

홍언의 서정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1910년대에는 한시의 비중이 높다. 1920년대를 주목해보면 1924년 12월 4일 발표한 1편으로부터 25년의 발표작품들은 시기적으로 연결되는데 모두 정해진 곡조에 개사를 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즉 창가 혹은 서양곡에 가사 붙이기 등의 작업으로 문학활동을 하였고, 〈춘면곡〉 같은 가사, 잡가나 민요의 곡조에 맞춰 가사를 붙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형식에서는 44조의 『대한민일신보』식의 가사 형식이나 곡조를 전제로 하는 후렴이 있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35년 이후에는 일정시기 동안 독특한 양식, 2음보 4행을 1연으로 하여 중첩되는 형식과 시조형식이 주를 이루게 된다. 시조의 경우 〈歌詞〉나 〈新韓風雅〉나 하는 고정난을 통해 1910년대에 고시조가 소개되지만 본격적인 창작시조는 1925년을 넘어서면서 게재되기 시작한다. 그 중 가장 중심되는 작가가 바로 홍언으로 1935년부터 본격적인 그의 시조작품 발표가 시작된다. 홍언이 국민회 기금을 모으기 위한 미국 전역과 멕시코, 중국에 이르는 대순례를 마칠 무렵이며, 순례 기행에서의 풍물과 느낌을 시조에 담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홍언 자신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한민보』에서 1949년 은퇴선언을 할 때까지 지은 시조가 280여 편에 이르게 된다.

홍언의 서정작품발표가 연도에 따라 고르지 않은데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홍언은 서정 작품 뿐만 아니라 서사, 혹은 논설이나 기행문 같은 교술적 작품, 한국의 풍물을 소개하는 산문 등

많은 글들이 『신한민보』에 게재되고 있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사, 희곡과 같은 문학 갈래와의 관련 속에서 보면, 12년부터 18년 사이에는 〈미인심(美人心)〉(1912~14년 12회 연재), 〈털혈원앙〉(1916~17년 37회 연재), 〈옥란향〉(1918년 6회 연재) 등의 서사 창작물, 신채호의 〈이순신전〉¹⁹⁾, 박지원의 〈허생전〉²⁰⁾과 같은 국내 서사물을 번역하기도 하고, 워싱턴 어빙(Irving, Washington, 1783~1859)의 〈The Conquest of Granada(1829)〉나 〈The Alhambra(1832)〉²¹⁾ 같은 작품을 번역하였다. 또한 〈동포〉(1917.08.30~12.20, 14회 연재) 같은 키노드라마를²²⁾ 실는 등 서정보다는 서사에 치중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920년대 후반에는 서정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뜸해진다. 1920년대 후반에는 국내문단에 치열한 프로문학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민요시운동, 시조부흥운동 등을 둘러싼 민족문학과 계급문학과 의 공방전도 치열했다. 미주지역에서도 1928, 29, 30년에는 임영빈과 이정두, 월성과 이정대의 논쟁이 주목된다. 이정두, 이정대는 형제로 당대 한인 문단에서 프로문학 혹은 무정부주의 예술 이론의 전위대임을 자임했었고, 반면에 임영빈과 월성은 비교적 예술의 전통미학을 옹호하고 문예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처음 논쟁은 사소한 문제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이념의 문제로 확대되는²³⁾ 시끄러

19) 광화춘선, 〈턴하슈군 데1위 리순신〉 1918.02.21.~04.18.

20) 〈허생-‘열하일기’에서〉 1918.08.15.~08.29.

21) 〈알함부라 월계화-와싱턴 어빙원저〉, 1918.09.19~18.10.03

〈그리나다 아메드 태자-와싱턴 어빙원저〉, 1918.10.10~18.12.12

22) 우리나라 최초 키노드라마는 1918년 신극자의 金陶山이 만든 〈義理의仇鬪〉였다고 한다.(국제영화사, 『영화연예연감』, 1969, 173~174면). 이로 볼 때 흥인의 〈신무대 ‘동포’〉가 공식적으로는 더 앞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조규익, 「논쟁을 통해 본 비평의 태도 및 관점」,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 301면.

은 시기였다. 그리고 출발점이 구체적으로 시인과 시를 거론하면서 작품성을 논하는 것이었고, 또 월성은 고국의 작품들을 베끼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포문을 열었다. 홍언은 이러한 시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간간이 『신한민보』에 글은 실으면서도 문예작품 즉 시는 실지 않았던 것 같다.

1928년의 「三月一日 오늘에 달라진 현상을 보고」(1928.03.01. 1067호)에서는 홍언은 당시 공방 중인 논쟁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오늘날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뉘어 사회·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 같은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 하고 구식인물들이 신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사회주의니 하는 것은 신진 청년의 주장으로 일시적인 소요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의 만년 대계를 일시적인 시류로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며 공연히 공리공론만 일삼는 소위 ‘어른’들과 일시 떠드는 ‘주의자’들 모두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위에서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구름이라는 필명의 작가, 당시에 유학을 와 있던 한후구의 시가 연속해서 실린다. 홍언의 경우, 1927년 〈숨결에 반긴 在墨同胞〉라 하여 1여 년에 걸친 멕시코 모금기행에 대하여 보고서 겸 문화 풍물 기행문 연재를 시작하여 1928년 3월 9일 1071호에 20회를 연재하고 다음 호에 계속한다고 하고서 더 연재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다. 그리고 1929년부터 1934년 사이에는 31년에 잠깐 〈새타령〉 3장과 〈개타령〉, 추모 한시 2편 발표한 것 외에는 서정시 창작 활동을 거의 중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홍언의 서정세계는 1935년을 기점으로 형식적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일정한 고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되어 정형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시조를 창작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다양한 시 형식을 시도하는 1935년 이전 시기와

정형형식을 선택하고 시조 형식을 모색하여 300여 편이나 되는 많은 시조작품을 창작하게 되는 그 이후 시기로 나누어 서정시형의 모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시 형식의 모색과정과 시조 시형 정착

3.1. 1935년 이전 서정 형식의 모색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홍언은 1912년에 첫 작품을 기고하여 1935년 이전까지 발표한 작품은 모두 40편이다. 20여 년이란 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한 두 해에 작품이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할 때는 더욱 적은 것이다. 그러나 20여 년이란 긴 기간 동안 홍언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서정 형식을 시험했던 모색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본 장에서는 시 작품 활동이 전혀 없었던 1917년과 23년 사이를 기점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홍언이 『신한민보』에 기고한 첫 작품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1912년에 발표된 한시이다. 이때부터 1917년까지는 발표한 시는 몇편 안되지만 한시와 시조형태가 중심을 이룬다. 첫 한시는 국민회 창립기념일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祝詞〉(1912.2.5. 265호)라는 제목하에 靑萍子, 滄海少年, 東海水夫의 7언 율시가 순서대로 실려 있는 것이다. 유독 동해수부의 한시 앞에만 “鳥[庶邊]鳥[古邊]天調”라 되어 있다.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喚起國魂功已成	나라혼을 환기하여 공이 이미 이루졌으니
斯人責任係蒼生	바로 이 사람의 책임에 온 국민이 매달렸다.

悲歌慷慨鬼神泣	비탄하며 부르는 슬픈 노래에 귀신도 호느끼는데
動地驚天霹靂聲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놀라게 하는 큰 소리라.
復仇願願未償 ²⁴⁾	원수를 갚고자 원하고 원하여도 갚지 못했네.
太平洋上不勝情	태평양 건너서도 정을 이기지 못해
英雄淚共仁人血	영웅이 어진 사람의 피와 함께 흘린 눈물
灑遍終南有幾層	종남산에 흘뿌린 것이 그 몇 겹이더뇨

시의 내용은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에서도 나라의 처지를 슬퍼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이 실린 다른 한 시와 달리 홍언의 시는 아래에 “鳥[庶邊]鳥[古邊]調”라고 하여 가락의 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올바른 표기로 고쳐보면 “鶻鵠天調”이다. 즉 자고천조는 宋詞를 노래하는 詞牌曲調名이기도 하고 원나라 散曲의 曲牌이기도 하여서 한시 가운데서도 가사를 엮어 노래 부를 수 있게 한 곡조명이다.²⁵⁾ 따라서 다른 사람과 같은 7언 율시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13, 14년에는 7편의 시가 실리는데 모두 한시이며 대부분이 7언 율시다. 담고 있는 내용은 위에서 인용한 의식 축하나 애도²⁶⁾, 샌프란시스코 금문공원의 산에 올라가서 지은 개인 서정²⁷⁾ 등 다양하다.

1916년에 “낭화秋船”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곡도넛노리>란에 실은 노래(1916.11.23. 419호)가 처음으로 시도된 시조 형식이다. 이는 “우락”이란 가곡창조의 이름으로 발표되어 곡조를 염두에 두고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한민보』에는 이에 앞서 량구성의 시조를 <넛곡도시

24) 7언 율시라고 보면 1자가 누락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노래 곡조가 전제되어 있고 내용이 통하는 것으로 보아 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5) 諺語大詞典篇輯委員會 諺語大詞典篇纂處, 『漢語大詞典』, 中國: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 湯有才(責任編輯), 『唐宋詞鑑賞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6.

26) <哭宋教仁>(1913.11.21.299호), <第四回國恥日有感>(1914.08.27.336호).

27) <登金門公園스투라베리山>(1914.07.03.332호)

노래>라는 제목(1916.04.27. 391호)으로 <시조 평조>와 <육자백이>·<홍타령>을 개사한 곡이 실려 있다. 이는 『학지광』 4(1915.2)에서 가져온 것으로²⁸⁾ 한자를 한글로 고치고 약간 가필하여 『신한민보』에 게재한 것이다. 량구성의 시가 게재되면서 이와 유사한 몇 편의 <신곡도넛노래>가 연재된다. 흥언은 아마도 이를 모범삼아 창작한 듯한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집을반하여, 돛더쫓해 운명을달고



티평양 만리풍파를 건너, 독슈리 식기치고 청산류수명려한 골에 로인을 만나, 일성행복길이 어디메나하뇨



더건너 치운이 어린 곳 광하천간대학교안○○○가서무르시오²⁹⁾

위의 형식을 보면 사설시조 형식으로 제목에 붙은 대로 ‘우락’이란 가곡창을 옆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 사설시조에서 볼 수 있는 문답체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한 청년이 미국에 건너와서 대학에 다니는 것이 인생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1917년 동안 사조란에 “시도의 넷곡도”라고 표기하여 한동안 개화기 시조들이 실리는 것을 볼 때 조규익의 견해대로³⁰⁾ 앞서 량구성의 시조에 붙인 <넷곡도시노래>의 오식임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흥언은 전통 서정 양식인 한시와 시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창을 전제로 하였다.

앞서 작품 개관에서 논의한 대로 흥언의 작품 활동은 국민회 활동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작품 활동이 뜸했던 1918년부터 23년까지는 흥언이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부터 대한

28) 兩球生, <舊曲新調>, 『學之光』 4, 1914.2, 51면.

29) 판독불능 부분이 있음.

30)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 81면.

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부회장으로 화교위원으로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한인국민회가 1921년 하와이 지방총회가 분리되어 교민단으로 독립함으로써 1922년 중앙총회가 해산하고 북미대한인국민회(北美大韓人國民會)로 재조직하는 등 재미교포사회에서의 격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홍언의 든든한 후원자인 안창호가 1921년 임시정부가 내부분열을 일으키자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4년 미국으로 와서 홍사단 조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무렵 다시 홍언의 작품활동이 왕성해진다.

이 시기 1924~5년에 전반기 중심을 이뤘던 한시나 시조가 아닌, 곡조를 염두에 두고 개사한 노래들이 집중적으로 창작된다. 1918년 홍언이 〈신무대 동포(1917)〉를 비롯한 소설 〈옥관향〉, 〈허싱〉 번역 등 산문 연재에 치중하고 있을 때 신한민보사에서는 〈국어창가발간추지〉라는 선전광고를 내었다. 시조를 모델로 지은 시들이 등장하다가 1917년 5월 24일, 당백산인이라는 사람이 〈우리갈길이멀고나〉를 지어 “태퍼리” 곡조에 맞춰 부르게 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17년 말까지 2곡 정도 만들어졌다. 이에 신한민보사에서는 아예 50곡 정도를 준비하고 이에 맞춰 부를 노래가사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³¹⁾ 많은 호응이 있게 되고, 신문사에서 제시한 음절수대로 지은 〈원슈갑호라고〉를³²⁾ 비롯하여 〈마이올드

31) “...근터에 널어려 류형하난 창가가 잇스나 이것도 사실상 완전치 못할 뿐 안 이올시다...이왕에 유행 창가 입으로만 불으고 달리는 전하지 못하던 쇼위 동양곡도 五十여종을 슈잡하야 완전히 四음에 난호야 곡도를 그려니엿습으로... 우리의 간절한 본 뜻을 짐작하시란 우리 남녀 동포씨서는 누구던지 좌에 그린 곡도와 그 밧게 신·구도간 맛초야 저술하야 주시면 본창가의 영광은 고사하고 일반동포의 정신 상의 유익이 다대하겠습니다 모집창가의 곡도는 좌에 그려보힙니다...”〈국어창가발간추지〉(1918.07.18, 495)

32) 전진택(추후 립세우로 정정)의 〈원슈갑호라고〉(1918.08.29, 501)는 앞서 〈국어

켄터키홈>³³⁾, <메모리>³⁴⁾ 또는 헨디가곡이라는 곡조를 염두에 지은 노래들이³⁵⁾ 대거 발표된다.

이 당시에는 흥언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작품을 창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1923년 흥언이 발표한 작품을 보면 바로 이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들 수 있는 <내나라>(1923.03.15. 808호)의 끝에는 “곡도는 우릴 화일 인드 쉘루”라고 적고 있다. 흥언의 <내나라>와 제시한 곡, <RED, WHITE & BLUE>의 가사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나라>

RED, WHITE & BLUE

—

하늘이 주신 천리 반도	Oh, Columbia, the Gem of the Ocean,
산이 높고 물은 고아서	The home of the Brave and the Free,
빅두산 옷둑 소슨 그 아리서	The Shrine of each Patriot's devotion,
뜻이 엇난 두만강 흘러가며	A World offers Homage to Thee!
강우에 넓은 들 기름진데	Thy mandates make Heroes assemble,
금강 구월이 들려 잇고나	When Liberty's form stand in view:
절승한 경지 둥 풍족한 물산	Thy Banners make Tyrants tremble,
무궁한 행복이 니 강산	When born by the Red, White and Blue.

(후렴)

CHORUS.

비단걸 갓흔 니 강산	When born by the Red, White and Blue,
그림과 갓흔 니 강산	When born by the Red, White and Blue:
우리 튕의 용감 칼을 쏘아	Thy Banners make Tyrants tremble,
영원히 직혀라 니강산	When born by the Red, White and Blue. ³⁶⁾

창가발간취지)를 통해 모집하는 창가 중 다섯 번째인 “◆ 「파를라」노리”의 형식에 맞는 노래이다.

*33) 광림대, <동반도넷집>(1918.09.05, 501호). 조규익(『해방전 재미 한인문학』 1, 70면)에 의하면 원곡인 <My Old Kentucky Home>은 1853년에 지어졌다고 함.

34) 광림대, <상사희>(1918.09.12, 502호).

35) <불여귀>(1918.10.24, 508) : <無題>(1918.11.07, 509) : <한양성>(1918.11.14, 510) 등등이 있음.

원곡조의 음절이나 행에 따라 가사가 지어졌고, 후렴의 형식 또한 지켜지고 있다. <RED, WHITE & BLUE>의 내용은 콜롬비아가 용맹한 자와 자유인의 고향이며, 애국자들의 전당이며, 들고 있는 깃발들은 압제자들을 떨게 할 것이라고 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며 싸울 것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개사곡과도 정서가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즉 동해수부가 사용한 곡의 제목은 <RED, WHITE & BLUE>로 미국의 성조기를 뜻한다. 이 노래는 미국 남북 전쟁(1861-1865) 때의 군가류로서 특히 <RED, WHITE & BLUE>는 미국 내에서도 이 곡조에 개사를 하는 작업이 성행하여 19세기에 대거 유행했었다고 한다.³⁷⁾ 이어지는 홍언의 <고국에 친구 보내면서>(1925.01.29. 906호)는 "LAST ROSE OF SUMMER"에 맞춰 부르는 노래이다. 이 곡은 역시 남북전쟁 당시 유행한 대표적인 군가의 곡조로³⁸⁾ 앞서의 <RED, WHITE & BLUE>보다 더 유명한

36) Red, white & blue, H. De Marsan, Publisher, 54 Chatham Street, N. Y. [n. d.]: American Songs and Ballads, Series 4, Vol.4, Library of Congress Rare Book &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URL: http://memory.loc.gov/cgi-bin/query/D?amss:4:./temp/~ammem_pMRr::
(들어가는 경로에 따라 조금씩 세부주소가 달라짐. the Library of Congress (<http://www.loc.gov/>)에서 탐색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음)

37) <America Singing: Nineteenth-Century Song Sheets>에 실려 있는 노래 중 <red, white and blue> 곡조에 부른 노래목록(http://memory.loc.gov/cgi-bin/query/D?amss:1:./temp/~ammem_LepZ::) 원곡인 Red, white & blue, H. De Marsan, Publisher, 54 Chatham Street, N. Y. [n. d.]를 비롯하여 <Ould Irish stew. Air: Red, white and blue, H. De Marsan, Publisher, 54 Chatham Street, N. Y. [n. d.]>와 같이 <Our own flag of green>, <The Confederate flag>, <Toast to Virginia> 등의 가사가 <Red, white and blue>에 맞춰 부르라고 악보와 더불어 1곡씩 출판·유통되었다.

38) For most of the nineteenth century, before the advent of phonograph and radio technologies, Americans learned the latest songs from printed song sheets...These were new songs being sung in music halls or new lyrics to familiar songs, like "Yankee Doodle" or "The Last Rose of Summer." Some of America's most beloved tunes were printed as song sheets, including "The Star Spangled Banner" and "Battle Hymn of the Republic."...The Rare Book

것이였다. 이런 노래들은 1850년에서 1870년 사이에 유행하면서 악보가 발행되었던 곡들이었고, 또 유성기시대에도 유행하였다고 한다. 흥언은 이런 군가의 분위기에 맞춰 가사를 만들어 발표하였던 것이다.

아일랜드 민요인 〈THE LAST ROSE OF SUMMER〉나³⁹⁾ 이어지는 작품의 〈ANNE LAURIE〉는 스코틀랜드의 민요로 모두 영국과 투쟁했던 민족들의 민요나, 「PALE MOON」⁴⁰⁾ 같이 서정적이면서도 1800년대 중·후반기에 유행했던 여러 미국 노래들에 맞춰 부르도록 지어지는가 하면, 동시에 많은 한국의 전통 곡조에 맞춰 부를 수 있는 노래의 가사도 창작된다. 〈허니문 노래〉(1925.03.19. 913호)라 하여 첫 수는 신랑에게 둘째 수는 신부에게 주는 것으로 3·4 혹은 4·4조를 1행으로 구성하는 시를 지었는데 역시 작품 끝에는 “*곡도 「춘면곡」”이라 되어 있다. 또 〈한양해타가〉(1926.04.08. 968호)는 “곡도 「넛노리 녕변가」”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허니문 노래〉의 첫 구절을 보면 “피틀리나 아일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of the Library of Congress holds 4291 song sheets. ...The collection spans the period from the turn of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1880s, although a majority of the song sheets were published during the height of the craze, from the 1850s to the 1870s. (America Singing: Nineteenth-Century Song Sheets/Rare Book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Search.)

URL: <http://memory.loc.gov/ammem/amsshtml/amsshhome.html>

- 39) 〈THE LAST ROSE OF SUMMER〉는 Thomas Moore (1779-1852)의 시에 붙여진 곡이었는데 작곡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유행하고 많은 개사곡들이 생겼다. 우리 나라에는 〈한떨기 장미꽃〉이라는 노래로 번역되었다.
- 40) 1. Lo! the pale moon (Popular vocal duets) / by F. Campana. CREATED/PUBLISHED Cincinnati:Church&Co., John, 1872.: REPOSITORY Library of Congress. Music Division.
2. When the pale moon arose last night. 1866 Gabriel, Virginia, 1825-1877: American 19th-century sheet music. Copyright deposits, 1870-1885. 이와 같은 예를 비롯한 여러 노래들이 보이는 데 여기서는 2번의 시상과 비슷하다. (*악보 및 가사 참조 <http://scriptorium.lib.duke.edu/sheetmusic/a/a21/a2114/a2114-3-72dpi.html>)

런/오날밤 허니문은/우리의 쭈루밍이/캅츄루 되엿고나”라고 하여 영어가 가사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원래 <춘면곡>의 한자 대신에 영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7년에는 4·4조를 바탕으로 하는 형식과 조금 불규칙해 보이는 음보수를 갖춘 행으로 된 형식 두 종류가 등장한다. 4·4조를 바탕으로 하는 형식은 앞서 <허니문의 노래>나 <한양해타가>의 계열의 노래로 볼 수 있다. 불규칙해 보이는 형식은 대체로 다음의 형식으로 대표해 볼 수 있다. 1927년에 발표된 <어린 롤로리쓰에게>(1927.08.44. 1037호)는 시가 시작하기 전에 “자유티 쏏동산 묵국 지앗바쥬 一九二六. 十二. 二六. 동학수부”라고 하였고, 전문은 12연으로 되었다. 첫 연은 다음과 같다.

금꿍이 놀은 썬는
겨울인데
월계화 피는 양이
봄빛이오
타는 듯 붉은 석류
너름이며
단풍진 「알민드라」
아모런 싱각업시
홀로 가을

이 형식은 1925년에 발표한 <바다에 쏏는 달>(1925.02.26. 910호)에서 연유한 것으로 앞서의 작업과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바다에 쏏는 달>은 “곡도 : 「MY THOUGHTS ARE YOU」에 맞춘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가사를 창작하였다.

바다에 쏏는달
반갑고나

안기와 구름이
 슬어지니
 하늘이 눈을 저
 웃는고나(후략)

위 시들은 두 줄씩 보면 3음보형 가락이라 볼 수 있고 3·3조와 4음 절의 반복형식으로 상당히 운율적인 미를 갖춘 형식으로, 흥언은 이 노래나 형식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927년에 이어지는 작품이 이 형식이며, 〈바다에 쫓는 달〉은 1938년에 〈바다에 쫓는 달〉(1938.11.24. 1607)로 다시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후 공백기를 둔 다음 1931년에는 다시 한시와 한국 곡조에 바탕을 둔 〈새타령〉, 〈개타령〉이 발표된다.

이와 같이 흥언은 1935년 이전에는 전반기든 후반기든 작품 수는 적지만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가창을 전제로 한 실험이었다고 하겠다. 그런 가운데 첫 작품인 한시에 “자고천조”라는 송사의 곡조를 제시하고 있고, “우락” 등 전통 가곡 및 시조 등의 전통 곡조에 근거한 시형을 시도하면서도 일면으로는 당대 삶의 터인 미국에서 만나는 서양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형식의 모색이 주요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3.2. 1935년 이후 시조 시형의 모색

앞의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35년 이전에는 가창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서정형식이 시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정시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어 양이 급격히 많아지는 1935년 이후의 작품 경향 또한 두 시기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2장에서 제시한 표를 다시 참고하면 1938년에는 거의 작품활동을 멈추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장인환 의사〉라는 동일 제목으로 한글노래는 추선으로, 한시는 동해수부란 필명으로

1937년 5월 27일 동일지면에 발표하였고, 이후 1938년에 발표되는 <다시 와서 보는 도산의 싯동산>(1938.11.10. 1605호)은 1936년 2월 6일에, <바다에 솟는 달>(1938.11.24. 1607호)은 1925년 2월 26일에 게재되었던 것을 철자법만 약간 고쳐 재수록한 정도이다.

이 시기 동안에는 『신한민보』에 다른 작가들의 서정 작품 또한 게재되지 않았다. 도산 안창호가 1938년 3월 10일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서거하자 이에 대한 추도시가 잠시 나타날 뿐이다. 홍언의 경우로 보면 1937년 6월 동우회 회원들에 대한 일제의 총검거로 도산이 잡혀가는 순간부터 사실상 작품활동을 멈춘 것이라 하겠다. 평소 홍언의 도산에 대한 숭배심으로 보면, 도산의 서거는 추도시조차 쓰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이 공백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작품은 3·4조의 2음보 2행으로 한 연의 정형형식을 삼고 일련 번호를 붙여 여러 연을 한 편의 작품으로 구성하는 시형식이 대거 창작되었으며, 1939년 말부터 50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거의 단형시조형에 몰두하여 290편에 이르는 시조 작품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시조의 정형적 형식이 정착하는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홍언이 처음 게재하는 시조는 앞의 장에서 논의한 대로 ‘우락’이라는 곡조를 전제한 사설시조 형식이었다. 뒤이어 발표되는 <녀사의국괴수 낫난그립>(1916.11.30. 420)의 형식을 주목해보자. 제목과 시의 전문 사이에 “슌흔곡도”라고 하여 역시 곡조 명이 붙어 있는데 곡조 표기만으로는 노래의 성격은 파악하기 힘들다. 다음의 시 전문을 보자.

쟁그린 고희눈섭
그무삼 근심잡것나
◆◆◆
눈갓흔 빅릉비단

쟁그린 고희눈섭 그무삼 근심잡것나
눈갓흔 빅릉비단 공교히 처식실잡아

공교히 치식실잡아	티극장 슈노호니 찬란한 영광이로다
◆◆◆	
티극장 슈노호니	
찬란한 영광이로다	
◆◆◆	
바늘을 뽑아들고	
암암히 생각노미라	
◆◆◆	바늘을 뽑아들고 암암히 생각노미라
한반도 영웅장사	한반도 영웅장사 소식이 끈니단말가
소식이 끈니단말가	홍안이 강기하니 눈물노 위로나 하지
◆◆◆	
홍안이 강기하니	
눈물노 위로나 하지	

위 시의 형식을 보면 3·4조/3·5조의 2행을 정형형식으로 한 6연시로 1910년 전후 본국에서 유행되었던 개화가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오른쪽 방식으로 기사해 보면 6구 3장의 단형시조 두 수를 합한 듯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다만 종장에서 시조 특유의 종결형식을 갖추지 않아 광의의 시조형식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12년 뒤에 다시 한번 시도되는 형식이 <황화의 원망>(1928.2.16. 1065호)이다. 이는 2음보 6행으로 된 四연의 형식이다. 첫 연과 둘째 연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一 황하는 九월 산들	二 황화는 느진 시절
익녀는 천리 희상	외로워 하는 원망
산에서 내려오니	한양의 모란 장미
누른 꽃 막막하고	춘풍에 다 이울고
바다로 도라오니	나 홀로 피는 가을
풀은 눈 반가워라	찬 서리 적막강산

위 시의 기사형식이나 분련은 개화가사 기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행을 구성하고 있는 2음보는 모두 3·4조의 정형성을 고수하고 있

다. 첫 번째 연에서는 협의의 시조에서 지켜지는 종장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며, 둘째 연은 겉으로 보기에 첫 번째 연과 마찬가지로 종장의 마지막 음보가 생략된 시조창 혹은 개화기 시조형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시조창 형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연과 마찬가지로 광의의 시조형식이다. 따라서 위의 작품들은 협의의 시조 종장 형식을 갖추진 않았지만 4수로 구성된 연시조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35년 이전의 작품으로 다양한 시 형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도된 한 형식이다. 이와 같이 협의의 시조형식을 지키지 않는 종장의 문제는 당시 1934년 김티선의 〈시도 二수〉(1934.04.05. 1376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3장 6구라는 광의의 시조형식이 이들에게 인식된 시조라고 볼 수 있다.

홍언의 작품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1935년경의 첫 작품이 바로 다음의 〈이 강산〉(1935.4.25. 1429호)이다. 전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一 두만강 빅두산	二 두만강 빅두산
그림의 이 강산	살아도 이 강산
꿈 속의 이강산	죽어도 이 강산
너 사랑이 네로구나	너 사랑이 네로구나
너가 너를 위하	너가 너를 위하
한 것이 무엇이나	가진 것 다만 량심

인용된 〈이 강산〉을 보면 위에서 논의했던 1928년 〈황하의 원망〉의 형식과 아주 흡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분리되어 있는 3장 6구는 시조의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며, 시조의 종장형식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연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종장 첫 구에 해당하는 구의 음절은 두 연 모두 “너가”라는 2음절을 취하고 있어 협의의 시조형식을 지키지 않았으며, 첫 연과 둘째 연이 취한 종장의 4음보 형식 문제도 그대로이다.

1928년에 시도했던 작품의 형식을 그대로 반복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기에 시도했던 작품의 경향을 고수하면서 비슷한 시 형식이 시도되는 현상은 이 이전의 서정 형식 모색과정에도 볼 수 있었다. 흥언의 경우 시 형식의 모색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험정신에 입각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 점이 앞으로 3년 동안 시도되는 정형 형식의 의미를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1935년 말부터 시작하여 한 1937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창작되는 시 형식이 바로 다음의 <윤봉길 의사>(1935.05.02. 1430호)에서부터 볼 수 있다. 이 시는 一, 二, 三, 四로 분련하여 十五까지 계속된다. 앞의 두 연과 마지막 연을 살펴보자.

一	그턱에	겨울아츨	二	다말은	이강산에	十五	소년에	성공하야
	장사가	가시도다		남은 것	무쇠주먹		영웅의	그 정신이
	강자에	피가 쓸어		늪으면	못쓰나니		일월과	함께 잇서
	한 곡도	슬프도다		짧어서	나는간다		하늘에	걸렸도다

좌측으로부터 세로로 1에서 15까지 번호가 붙어 연속적으로 기사되어 있는데 한 행은 3·4조가 정형을 이루고 있다. 한 행이 3·4조 정형을 이루는 것인 이미 191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율조이며 이를 중첩하여 2행을 반복의 한 단위로 삼은 것도 이미 시도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위와 같이 형식의 시가 많이 발표된다. 평립 혹은 평립 차의식의 여러 작품들 <코리아-아메리칸>(1935.08.08. 1444호), <교미三十年>(1935.11.21. 1459호) 등등이나 무명씨의 <신한춘>(1936.08.20. 1497호)같은 시가들이 흥언의 시 형식과 같이 2음보 4행시의 형태를 보이면서 당대 시가 형식의 주류를 이루게 됨을 시사한다.

위에서 인용한 시 형식을 보자. 기사형식을 주목하여 보면 2음보 2행의 반복 형식으로 보기보다는 2음보 4행시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런

형식의 시가 <윤봉길 의사>이후 1935년에는 5월부터 7월 사이 거의 매주 발표되는데 <꿈에 고국에 가서>라는 제목하에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압록강, 금강산, 함경도 등 한국을 추억하는 10편의 시가 발표된다. 그리고는 다시 1936년 1월부터 1937년 5월까지 증가주, 즉 캘리포니아 일대, 오레곤, 아리조나, 텍사스, 멕시코 등을 여행하면서 지은 기행시가 이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 시기동안 40편 정도가 발표되었는데 이 형식이 아닌 시는 겨우 6편 정도임을 감안할 때, 홍언이 의도적으로 집중적인 창작 실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홍언이 연재했던 <조선기성시화>에 나타난 주장과 관련지어 형식을 살펴보자. 홍언은 조선기생의 한시를 “조선 정가의 음조에다 한문을 활용하여 한시 중 다른 一종의 시격을 가졌음”이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조선 기생의 한시를 보고 근일 조선 문단상 시사 가곡을 보아 서로 비교하면 소위 시더적에 쏠려 고유의 음조를 변함으로써 제 정서까지 일허바림을 깨닫지 못하나니 다만 이 점에서 비평하면 현대 문인의 음조가 넷적 기생의 음조만 못한 것이다. …중략…

- | | | | |
|-------|------|-------|--------|
| 一 양루지 | 리별곡을 | 三 갈대가 | 썰막썰막 |
| 나죽이 | 불오오니 | 강물이 | 풀은 곳에 |
| 二 오리정 | 아침비에 | 四 진흙을 | 밟고 갈 제 |
| 찌고리 | 우는구려 | 말굽이 | 짜지거라 |

(쥬) 양류지난 버들가지니 이난 한문시학에서 가져 온 것이다.

데 一절 「리별곡을 나죽이 불오오니」하야 노코…중략…四절은 조선 정가의 「날바리고 가는 님은 나리를 못가서 발이 불으트시오」와 갓흐니 일은 바우리 동방음조라난 것이다…<조선기성시화>(1936.12.3. 1512호)

홍언은 기생의 한시들이 당대 다른 한시들과는 다른 격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격찬하고, 당시 문단에서도 이와 같이 고유의 음조를 중시하면서 우리만의 정서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한시를 번역해

보이는데 한시의 번역투가 바로 이 시기 홍언이 이 시기에 시도하고 있는 시 형식이다. 이에 대해 홍언은 조선의 정가음조를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물론 형식상의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⁴¹⁾ 특히 이 글의 서두에서 기생들의 한시를 몇 수 번역하지만 “국문을 가져 한문의 문치를 옮겨 올 수 업난 것”이라고 하면서 독자의 양해를 구하였다. 홍언이 1918년 시화<동국립향록>에 번역한 다음의 한시와 비교해보자.

란초가 꽃피여 시니길에 잊지만은
 三춘에 비취가 깃드리기를 기다리노라
 적막하면 찰알이 슈풀을 의지할지언당
 광풍을 짜라 진흙에 썩러지기는 붓그러 하노라

<동국립향록>에서의 한시번역은 모두 위와 같이 운율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이고, <조선기심시화>에서는 모두 3·4조 2행을 분련체처럼 사용한 정형시로 번역해 놓았다. 따라서 조선 정가와 비교하는 말들로 이들 한시를 평가하고 있음으로 보아 <조선기심시화>에서의 한시번역체는 음악이 전제된 형식이라 하겠다. 또한 당시 정가라고 할 수 있는 십이가사 가운데 하나인 <춘면곡>을 전제로 창작된 <허니문 노래>(1925. 03.19. 913호)를 보면 3·4조, 4·4조를 중심으로 연속체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홍언이 이 시기에 시도했던 정형성을 띤 시가 형식은 우리나라의 정가(正歌) 즉 노래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홍언은 또다른 한 편의 한시를 번역하여 실고 있는데 제목은 <친선영>(1936.11.12. 1509호)이다. ◆데一장, 데二장으로 분련을 하였고 그 중 첫 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41) 조규익(『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 327면)은 한시를 전형적인 3·4조의 구어체로 옮겨놓았다고 하면서, 홍언이 “조선 정가 운운”한 것이 이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당상은 혈죽이오
궁중리화 락화로다
고요한 한양성에
무궁화를 썩근다음
임도화 편시춘식을
썩결인 듯 보앗노라

홍언은 시의 전문 앞에다 중국신문에 게재했던 것을 다시 번역한 것 이라는⁴²⁾ 설명을 써 놓고 있는데 그 결과는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조 형식이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종장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한시를 번역함에 있어서 조선 正歌라는 이름하에 고정적인 형식을 취하거나 혹은 시조의 형식을 선택한 것은 홍언은 노래를 전제로 하여 시 형식을 모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은 일정한 공백기를 기점으로 단형시조로 전환하는 데에도 작용하고 있다. 앞서 한시의 번역 형식에서 본 바와 같이 1936년에 시조라고 볼 수 있는 형식이 나타난다. 이들은 그 시기에 사용했던 분련체 형식을 주로 사용하고, 1연이 4행이 아닌 6행으로 시조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작가가 의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연시조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첫 단형시조는 1939년 <황해도 산천>(1939.7. 27. 1641호)이다. 이로부터 1939년 말까지 11수의 단형시조가 발표되는데 그 가운데 8편 말미에 “곡조:시조 계이수”라 하여 곡조를 지정하고 있다. 특히 “계이수”, 즉 계면이수라고 지정한 것 가운데 맨 마지막 작품은 <버들의 푸른 실이>로 작품 전문은 다음과 같다.

버들의 푸른 실이
풀줄을 알앗드면

42) “<친선잉>는...(중략)...이 시를 한문으로 쓰어 중국신문에 게재하였다. 이제 이 시를 우리 글로 번역하여 신한민보에 게재하난 그 의미난 다만 잉화를 미워하난 터 잇난 것이다.”

◆
시인과 믹진 정을
내라구 안이 풀니

◆
춘광을 그리난 글이
풍류다정 하옵건 (1939.11.30. 1658호)

위는 “버들은 실이 되고”로 시작하는 현행 우조 이수대엽의 대표적 인 시조의 시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종장의 음수율이 3·5·4·3으로 협의의 시조이며 종장의 형식으로 보아 가곡창의 창사(唱詞)로서의 시조이기도 하다. 이 외에 곡조를 제시한 시조로는 1940년에 고시조 〈어부사시사〉를 전체로 한 〈한국 광복군 성립을 뜻고〉(1940.10.10. 1701호-1703호)가 있다. 시조 끝에 “곡조:어부사”라 하고 “칼 췌여라 칼 췌여라”와 “광복군 광복군 어사와”를 후렴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이렇게 곡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1940년 이후는 위의 〈버들의 푸른 실이〉와 같은 단형 시조를 창작하게 된다. 사조란에 게재되는 시조의 형식은 위와 같이 2음보 2행씩을 단위로 ◆ 혹은 ◆같은 부호로 초·중·종장별로 나뉘어 기사되고 있다. 한 행 내에서의 2음보 사이는 다른 띄어쓰기보다 좀더 여백을 두어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2음보 2행씩 3연, 모두 6행으로 배행하는 방법으로 이런 기사형식은 최남선의 『백팔번뇌』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⁴³⁾ 1932년 『노산시조집』⁴⁴⁾ 등 당시에 발표되는 시조는 대부분이 3행으로 배행·기사하고 있으나, 6행 표기도 혼재하고 있었다.⁴⁵⁾ 1947년에 발간된 『조운시조집』에서는⁴⁶⁾ 자유시처럼 다양하게 늘어놓는 표기

43) 임선목, 「〈백팔번뇌〉의 형태구조 연구」: 조규설 공편, 『시조론』, 일조각, 1978.

44) 이은상, 『노산시조집』, 1932. : 『한국현대시사자료집성』 5.

45) 임선목, 『근대시조대전』, 홍성사, 1981.

46) 조운, 『조운시조집』, 조운사, 1947. : 『한국현대시사자료집성』 42.

법 사용한 것에 비하면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초·중장은 모두 3·4/3·4의 정형성을 지키고 있다. 이는 당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조론에서 제시하는 정형성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 이민자들은 항상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 전제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당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국내 서적이나 잡지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었고,⁴⁷⁾ 국내의 카프문학과 국민문학 간의 논쟁과 같은 이념 논쟁이 일기도 하였으며,⁴⁸⁾ 심지어는 고국 작가의 작품들을 무단 전재하는 일이 빈번할⁴⁹⁾ 정도로 국내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홍언의 정치적인 입장과 위치, 문학적 능력이나 시험 정신으로 보아 1920년대 후반에 전개되고 있던 민족문학운동의 일부로서 시조부흥의 문제를 외면하였을 리는 없을 것이며, 본국에서 일고 있는 시조이론에 대해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 이 형식의 문제는 이병기의 <시조를 혁신하자>에서⁵⁰⁾ 형식의 고정성 주장과, 이광수의 「시조의 자연율」이나⁵¹⁾

47) 1920년 대 후반 일부분만 보더라도 1929년 6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1926년 11월 개벽사에서 창간한 『별건곤』 5월호를 정가 50전으로 선전, 9월 경에는 6월호를 선전하는 등으로 보아 본국의 서적, 잡지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조규익, 「논쟁을 통해본 비평적 태도와 관점」, 앞의 책.

49) 월성이라는 기고가는 <문예계의 신류형>(1929.09.26 1149호)에서 시카고의 검 갈떡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고국노력률」은 파인 김동환이 1928년 조선일보에 발표한 것이고 리정대의 「락화암」은 춘원 이광수의 것임을 밝히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국의 문인의 작품들을 버젓이 자기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50) 이밖게 또 字數는 行數의 定型까지도 破壞하였으면 좋을줄로 생각하는이도 있으나 그는 아니된다. 時調로서의 목숨이 여기에 있고 이목숨을 살리자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동아일보』 1932.1.22. : 『한국현대시이론자료집』 14, 34~44면.)

51) 이광수, 「시조의 자연율」, 『동아일보』 1928.11.2~7. : 『한국현대시이론자료집』 9.

조윤제의 「시조자수고」에서⁵²⁾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시조 형식 불변부분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1. 초장과 중장의 제4구는 4음일 것
2. 종장 초구는 3음, 제3구는 4음일 것

이 결론에 의하면 시조의 형식은 고시조에서 추출한 것으로 3434/3434/3543의 형식으로 고정될 수 있다. 이 형식에 비춰 보면 흥언이 시도한 시조 형식의 경우 종장 형식의 파괴가 많다. 처음은 광의의 시조 형식으로 종장 형식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나중에는 위에서 제시한 형식으로 고정하기 위해 글자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광의의 형식화는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초기에 자주 등장하였고, 30년대의 경우에는 주로 분련되어 연시조의 형식으로 된 시조형인데 아래의 〈맥스코 '고네호'에게〉(1936.06.25. 1489호) 같은 작품이다. 네번째 수의 경우를 보자.

고네호! 고네호!
고네호가 장미화냐?
+년전 가는 길에
인간리별 섭섭한 정
—지명화 생각헛스라
고네호를 그리워

종장에 해당하는 구절을 보면 첫 구는 4자를 사용하고 종장 마지막 구가 '하노라' 등의 어휘가 아니라 실사로 채워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52) 조윤제, 「시조자수고」, 『신홍』 4, 1930.11. :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171면.

당대 국내 문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학적 형태로서의 시조 형식이 아닌 광의의 시조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단형 시조의 형식이 중심을 이루는 40년대에는 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식을 고정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종장 첫 구가 3자로 고정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종장 둘째 구 음절수의 고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다섯자를 준수하기 위해 '를' 삽입하는 경우이다.

가난 길 바라를 보고
나도 김버 하오라 <어디로 가녀느냐?>(1940.03.17. 1670호)

둘째는 다섯자를 준수하기 위해 축약하는 경우이다.

군자가 가시단말가?
거의다시 뵈오리! <안도산 선성 대상에>(1940.03.21. 1672호)

셋째는 다섯자를 준수하기 위해 생략하는 경우이다.

황혼에 청산이 첩첩
갈 곳 업서 어이리 <갈 곳 업서 어이리>(1940.04.18. 1679호)

넷째는 다섯자를 준수하기 위해 음절을 늘이는 경우이다.

불여귀 스슬폰 두건
게서올고 잇더라 <석오선성의 서세를 숲허함>(1940.05.30. 1682호)

이와 같이 홍언은 다섯자를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음보수나 초·중장에서 불변의 4음절 위치를 고수하는 등 단형시조에 형식성에 대한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국에서 전개되는 1940년대 시조론은 단형을 추구하며 형식성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형식운용에 대한 융통성 부여라는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⁵³⁾ 당시 조남령은 「내가 본 시조형」에서⁵⁴⁾ 시조는 구속 속에서도 자유로이 자유형식을 찾아간 발전상이라고 하면서 시조의 형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특히 흥언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조운(1898~?)이 시도했던 다양한 기사형식을 활용하는 등의⁵⁵⁾ 다양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1930년대초 『동아일보』에서 『三二年文壇展望』이라는⁵⁶⁾ 제목하에 문단의 명사들에게 한 해를 진단하게 하였다. 15번째 사람인 「文學研究家 鄭寅燮」(『동아일보』 1932.1.16.)이 시조에 대한 대답에서 “現在 朝鮮文壇의 詩分野에 있어서 時調가 相當한 數로 大量生産되는 傾向이 있는데 그것을 大略 다섯가지 態度로 分할 수 잇슬가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다섯 시조시인의 유형을 제시한다.

- (가) 漢文詩의 直譯的 延長
- (나) 形式美의 本領的 創作
- (다) 新詩에서 逃避하는 安住
- (라) 固有觀念의 無條件 崇拜
- (마) 新興內容의 試作的 肯定⁵⁷⁾

이 가운데 흥언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본다면 40년대 정착했던 시조의 형식문제에서 볼 때는 두 번째인 (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인섭

53) 문무학, 『시조비평사』, 대구:도서출판 대일, 1997, 178면.

54) 『문장』, 1940.10. 207면.

55) 조운, 『조운시조집』, 자음과모음, 2001.

56) 『동아일보』 1932.1.1-1.23. 김동인, 김진섭, 염상섭 함일돈 등 20인에게 「一九三二年의 朝鮮文壇은 어찌케 展開시킬까? 또는 어찌케 展開될까」를 주제로 7개의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시조의 전망을 묻는 것이다.

57) 『한국현대시이론자료집』 14, 15면.

에 의하면 “拘束된 形式美를 愛好하는 天性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可能的 것이되 그 內容이 그다지 切實한 것이 업는 文字만 妙하게 뒤치고 이르고 하는 헛수작은 到底히 可타 할 수 업”다는 혹독한 비평을 들을 수밖에 없으나 국문시가에서 음악을 분리시키지 않으려는 노력과 본인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자산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4. 결론

본고에서는 1905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950년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던 홍언(洪鵑:1880~1951)이 『신한민보』에 게재한 서정시의 형식 모색과정과 그 의미를 추적해보았다. 먼저 작가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고 서정작품 전체를 개관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전기적인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품의 구체적인 형식을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홍언이 시도하였던 시 형식의 모색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홍언은 1911년 『신한민보』에서 언론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40년간 언론인으로서 문학가로서 활약한다. 『신한민보』에 게재하는 첫 서정작품인 한시 〈축사:자고천조〉(1912.2.5.265호)를 게재한 1912년부터 1951년 3월에 작고할 때까지 발표한 서정시는 약 400여 편에 이른다. 창작 시기에 따라 다른 시형이 시도된다. 이는 홍언의 왕성한 창작 욕구와 시험정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창작시기는 홍언의 시 창작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홍언의 시 작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3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보다 이후에 활동이 왕성해진다. 396편의 서정작품 가운데 356편이라는

대다수가 1935년 이후에 창작된다. 1935년 이전은 작품 수는 적지만 다양한 시형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1935년 이후에는 작품 수가 많은 반면 두 가지 형식에 의한 작품창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1935년 이전에는 40편의 작품가운데는 한시, 시조, 창가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 한시의 경우는 11편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7언 율시이다. 그런데 첫 작품에 “자고천조”에 의거하여 지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송나라 詞牌의 곡조명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한시이다. 그리고 시조(우락), 〈춘면곡〉, 〈영변가〉 등 시조, 십이사 등의 정악과 서도 민요 등을 모델로 한 여러 가지 시 형식을 시도하고 있다.

한 편으로는 1920년대에는 〈ANNE LAURIE〉, 〈THE LAST ROSE OF SUMMER〉와 같이 미국에서 당대 유행하고 있는 민요나, 〈RED, WHITE & BLUE〉 같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군가, 유행했던 여러 노래를 염두에 둔 노랫말을 많이 창작하여 살고 있는 현장에서의 문화 수용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형식은 모두 곡조가 전제되어 있기에 뚜렷하게 정형성을 밝힐 수는 없지만 〈춘면곡〉 같은 것을 모델로 한 노래에서는 4·4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의 공백기를 둔 후 1935년부터는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작품의 경향성이 뚜렷해진다. 작품의 개관을 위해 작성한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1938년 공백기를 거치면서 1939년을 기점으로 시조 창작이 압도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이 시기, 시조 창작의 이전에는 3·4조 혹은 4·4조를 기저로 하는 2음보 2행 형식을 연으로 설정하고 一三三 등의 숫자로 분련하여 4~15연 정도로 구성된 정형적인 시 형식이 중심이 된다. 이 시 형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나, 홍언이 당대 발표한 문학론 〈조선기심시화〉 등 현재까지의 논거로 보아서는 조선의 정가 형식을 염두에 두고

홍언이 고정시킨 정형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39년부터 시작되는 단형시조의 창작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전에도 시조의 형식은 간간이 이용되었지만 본인이 시조라고 의식한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연시조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 시기는 3·4·3·4/3·4·3·4/3·5·4·3의 정형성의 띤 시조형식을 추구하였다. 1939년에 처음 시도에서 “곡도:계 이수”라고 하여 가곡창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형식은 역시 앞서 제시한 정형성을 고수하고 있다. 1940년이후부터 곡조의 제시는 없지만 종장의 정형성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종장의 2구를 다섯자로 고정하기 위해 음절수를 늘이고,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본국에서 시조부흥운동을 계기로 이병기나 조윤제가 학문적으로 밝힌 시조시형을 참조하였다고 하겠다.⁵⁸⁾ 현대시조로서 다양한 형식의 추구라기보다 그의 주장대로 시조 고유의 형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용을 새롭게 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홍언은 이념문학과 민족문학의 대립 논쟁에서 보여준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⁵⁹⁾ 한 때 유행하는 사조는 3개월을 가지 못하는 것이니 “민족의 만년대계를 시태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역설하였기에 문학에 있어서도 시험한 양식 가운데 시조를 선택하였고, 또 시조의 정형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홍언은 당시 누구보다도 다양한 작품형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홍언은 작품활동을 쉬었다가 시작할 때는 항상 예전에 시도했던 형식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시험하는 경우가 많았기

58) 당시 이민지의 문학은 국내의 문단 동향이나 학계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박미영, 『『신한민보』 소재 시가의 이민문학적 성격』, 『진리논단』 7, 천안대학교, 2002.)

59) 『三月一日 오늘에 달라진 현상을 보고』(1928.03.01, 1067호).

에 시 형식의 모색에는 그의 의도와 실험정신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홍언에게 있어서 국문시가란 음악이 전제되어 있는 노래였던 것 같다. 작자의 다음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리는 성악이요, 문학 상 一종의 운문임으로써 먼저 문학상리론에 근거하여 말한다. <평론:이국지사의 노리>(1943.11.25. 1861호)

이와 같이 한시에서부터 서양 창가, 시조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염두에 둔 시작의 형태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언이 서양창가 즉 노래의 형식을 통한 자유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기보다는 국문시가를 노래로 인식하고자 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09년 신채호가 <천희당시화>를 통해 주장했던 國詩, 시로서의 시조를 인식하고자 했던 적극적인 문제의식⁶⁰⁾ 이어받지 못한 채, 시조부흥론자들의 시조형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는 홍언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 들여 전환을 꾀하기에는 스스로의 전통적인 소양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민지라는 문학적 토양 또한 자생력을 갖추기보다 국내문단의 종속성이 강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⁶¹⁾

따라서 홍언이 많은 서정양식을 실험하여 결과적으로 선택한 시조는, 1940년대의 경향으로 보아 고유의 형식을 존중하면서 내용을 참신하게 혁신하는 현대시조의 한 조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겠다. 이 점은 홍언의 작품에 나타난 역사인식이나 이민지 현실 인식에 대한 작가의식에 대한 규명이나 그가 주요 소재로 사용하는 꽃이나 기행과 같은 주제론적인 접근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미주화교신문에 실렸으리라 짐작되는 홍언의 많은

60) 박미영, 「본문분석에 의한 역대시가론의 시조관 연구」, 한국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4. 241-244면.

61) 박미영, 「『신한민보』소재 시가의 이민문학적 성격」, 258면.

작품을 포함한 작가의 문학작품의 발굴과 작가의 생애 고증 등 작품연구의 기초가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과제로 남기고 있다. 나아가 홍언이 창작한 시조, 서정 작품전체를 통해 표현한 삶과 정신적인 궤적, 문학성을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넘어서 다량의 작품을 창작한 이민지의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이세보 이후 일제 강점기의 최대 시조시인인 최남선·이은상·이병기에 필적하는 한 시조작가로서의 문학사적 위치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 자료

- 『신한민보』 1~6,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1.
『신한민보(1909~1973)』 1~27, 논문자료사 영인, 1991.
『신한민보』 MF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UCLA 대학 소장 MF사본)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2~6, 월인, 1999.
임선목, 『근대시조대전』, 흥성사, 1981.
『한국현대시이론자료집』, 한국학진흥원 영인, 1988.
『한국현대시사자료집성』, 태학사 영인, 1982.
미국 국회도서관 귀중본 사이트(<http://lcweb.loc.gov/r/rarebook/>)
〈America Singing: Nineteenth-Century Song Sheets〉
(<http://memory.loc.gov/ammem/amsshtml/amsshhome.html>)

B. 논저

- 강은혜, 『일제강점기 망명지문학과 지하문학』, 『서강어문』 3, 서강대, 1981.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1973.
김순희, 『현대시조의 형태와 창작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8.
김영철, 『한국근대시논고』, 형설출판사, 1988.
김원룡, 『재미 한인 50년사』, 김호(Charles Ho Kim) 발행, Reedley:Calif. 1959.(철필 프린트 본)
나정순, 『시조장르의 時代的 變貌와 그 意味』,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9.

조규설·박철휘 공편, 『시조론』, 일조각, 19.

문무학, 『시조비평사』, 대구 : 도서출판 대일, 1997.

——, 「일제강점기 流移民 시조 연구:〈新韓民報〉를 중심으로」, 『대구어문론총』 14, 1996.

박미영, 「본문분석에 의한 역대시가론의 시조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4.

——, 「『신한민보』소재 시가의 이민문학적 성격」, 『진리논단』 7, 천안대학교, 2002.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오양호, 『일제 강점기 만주 조선인 문학연구』, 문예출판사, 1996.

윤영천, 『한국유이민시 연구』, 실천문학사, 1987.

이동연, 「19세기 시조의 변모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5.

임선목, 『시조시학서설』, 단대 출판부, 1981.

임종찬, 『현대시조론』, 국학자료원, 1987.

장사훈, 『시조음악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정명숙, 「한국개화기 해외유이민 시가 연구-〈신한민보를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논문, 1987.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 월인, 199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제3판, 1994)